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하반기에 등록된 새교우를 위한 환영회가 오늘 11시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2015년 교우전화부를 만듭니다. 번호가 바뀐 분들은 로비에 마련된 전화번호부에 수정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가 준비한 성탄 축하행사가 24일(수) 저녁 7: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목)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가 25일 오후 3:30 안산 세월호합동분향소에서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세요.

삼하 7:1~11 / 시89:1~4, 19~26 롬 16:25~27 / 눅 1:26~38
--

신 32:8~14
-----------

오늘 식당 봉사 : 강순배 국지연 서안나 김지윤 정영우 김지호 이민범
다음 주 식당봉사 : 박영신 조순덕 허명선 김정미 김종락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교회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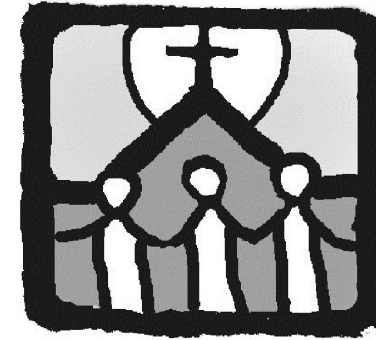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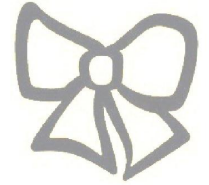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분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실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무엇 하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작은 물건 하나, 작은 생명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의 탄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에 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아침에 일터를 빼앗겨 높은 곳에 올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회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외침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경혜 김근종 정옥영 김성우 박유경 김신실 김용진 박효선 김이석  
 이선화 김정수 김주영 김준호 곽혜자 김훈동 유경순 방극숙 송형운  
 하미림 심상숙 왕수명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광석 이경희  
 이광섭 이동천 이봉옥 이부곤 이순용 이윤석 박안수 이재문 이지훈  
 장근성 박희순 정종삼 정한구 왕영순 정현모 정현선 정현숙 조관행  
 홍선희 주경진 이윤정 주은경 최은미 최철수 곽권희 한성건 정지혜  
 무명

### 감사헌금

김명하 김성한 조영순 김정진 김혜정 김종철 김진중 김태정 김향자  
 리우림 문금석 오재형 임고은 임형욱 장복순 한성건 정지혜 한완식  
 임정자 허신열 미술치료동호회 무명9

### 생일감사헌금

박성실 송양진 조관행 홍선희

### 녹색꿈헌금

김재환 김진선 김혜영 박호규 강영님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조항범  
 무명3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방	학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중		

# 2015년 청파교회의 집회 변화

## ■ 청파성서학당

매 주일 오후 1:30부터 2:20까지 교육관에서 성서학당이 열립니다.  
(강의 : 김기석 목사 / 에스겔서 강의)

## ■ 동호회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30부터 동호회별로 모입니다.

## ■ 선교회

매월 셋째 주일 오후 2:30부터 선교회별로 모입니다.

## ■ 수요 집회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 때제 찬양과 기도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 ■ 수요 저녁 성서연구

매월 첫째 주를 제외한 수요일 저녁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강의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 1년 40주에 걸쳐 성경 66권 강의)

## ■ 토요 성경통독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세미나실에서 한 시간씩 성경을 통독합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금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일구어 가십시오.

아멘.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한탄만 하며 지내온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눈물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슬픔 가득한 하늘을 새로운 하늘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성탄 축하 행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이용현 선생 김승현 집사

12	영접위원	김인걸 송형운 주경진 정현숙 하미림 김현주
	헌금위원	한완식 김경혜

믿음으로 읽는 글

## 새벽 별과 종소리

권정생이 처음 문간방에 들어와 살 때만 해도 교회는 어려운 교인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되돌려받기도 했다. 가난한 전도사의 사례금은 말할 것도 없이 부족했고 심지어는 좁쌀 한 말, 쌀 몇 되가 전부 일 때가 있었다. 권정생은 가난하지만 따뜻하고 정이 있는 그 시절 교회가 그리웠다. ...

그런 속에서도 가난한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교회를 단장하는 것으로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일은 멈춰지지 않았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해지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비단 교회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교회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일 뿐이었다. 권정생은 교회 문간방에서 절망과 분노의 심정으로 <김 목사님께>(1981-1982년)라는 글을 잇달아 쓴다. <김 목사님께>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사를 향한, 더 나아가 부와 권력을 쥔 지배집단을 향한 따끔한 일침이었다.

저는 잃어버린 진짜 하느님을 찾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커다란 교회보다 두세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아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숫자보다 무기가 더 많은 나라, 자기 민족을 원수로 삼고 남의 나라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백성, 자유롭기보다 얽매이길 좋아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당신의 조국은 어찌시렵니까?

교회당 짓지 말고 인간을 죽이는 무기부터 걷어주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부터 헐어주십시오.

하느님을 시멘트 건물 속에 가두어 놓고 한 주일에 한 시간씩 면회 가는 것이 하느님 사랑입니까? 내 혈육에겐 살인 무기를

들이대 놓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까?

목사님, 제발 그런 엉터리 나발은 불지 마십시오. 인간이 물건 취급받는 교회이니까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팔아 썩어버릴 육체 보존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님께>중에서)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 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는 정치와는 떨어져 순수한 도덕적 수양만으로 높은 신앙인이 되라 가르치면서, 어쩌면 그렇게 정치와 결탁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갈보리 산 언덕에서 죽은 예수는 진실로 정치와 대결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를 부정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정치를 비판하다 보니 왕의 미움을 샀고, 사제들의 미움을 샀고, 로마의 앞잡이들에게 미움을 산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인간을 하느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을 받은 하느님으로 모신다면, 어찌서 이 땅에 또다시 슬픈 피 흘림이 있겠습니까?

정말 개코같은 민주주의를 앞세워 총칼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군주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김 목사님께>중에서) ...

권정생은 삼십대 초반부터 사십대 중반까지 16년을 교회문간방에서 살았다. 병마와 추위와 더위, 외로움에 시달리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날이 수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는 동안 행복한 순간도 많았다. 무엇보다 그는 새벽마다 종을 울리던 때를 잊지 못했다. “깨끗한 하늘에 수없이 빛나는 별들과 종소리가 한데 어울려 더없이 성스럽게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하느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다.